

터닝 포인트 *TURNING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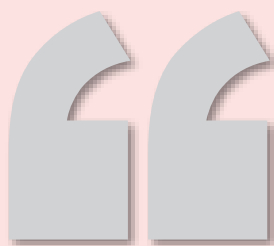
아래는 선생님이 대학에서 받은 보고서입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자신의 대학 생활과 연애 생활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결심했다는 내용의 글이에요.

여러분도 곧 20대 청년이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아니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연애 하겠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아래글을 읽으면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등학생일 적에 대학교에서의 수업은
어떠한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은 더 자율적인 분위기인
것만 빼면 고등학교 수업과 차이는 없었다.
그렇게 쳤바퀴 굴러가듯 시간은 흘러 방학을
맞이하고, 또 개강을 맞이하면서 3학년이
되었다. 3학년이 되던 해에 1학년 전공인
대중매체○○론을 들었는데, 이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다름을 느꼈다. 대학 생활의 시작을 이
수업과 함께 했더라면, 나의 연애 생활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어리석고 생각이 짧은 행
동들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이광호 베네딕도 (생명문화연구가 위지(爲之))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위원, 주교회의 교육
위원회 위원. '爲之'는 '知其不可而爲之'(논
어 헌문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래도 한다.'의 마지막 두 글자를 따온 것으로,
필자의 호(號)이다.

난 여태까지 남자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문학청년’이었던 남자를 떠올려보려 해도, 그런 남자는 없었다.

교수님께서 명하셨던 ‘야동청년’들 뿐이었다.

그리고 정말 공감이 가면서도 씁쓸함을 느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전의 ‘야동청년’들의 문화는 하위문화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그 하위문화가 모두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이 말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대중매체, 포르노의 힘이었다니.

TURNING POINT

내가 만난 남자 중에는 좋은 대학의 상위층에 속한다는 남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야동청년’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냥 남자는 원래 다 이러니까.’하고 ‘야동청년’ 같은 모습에 대해서 애초에 실망을 하지 않았고, ‘문학청년’ 같은 모습을 남자들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남자들의 그런 성향에 대해 관대해져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나의 이런 관대함을 많이 좋아해주었다. 나는 나의 이런 점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는 내가 부끄럽다.

정말 이상한 점이 뭐냐면, 내 나이 스물 셋에 섹스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그 여자가 매력이 없고 이상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애초에 경험이 있는 여자라고 간주하는 남자들도 있었다. 정말 이런 하위문화가 어느 정도로 대중화되었는지를 실감할 만한 사연이 나에게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오빠를 알게 되었다. 그 오빠는 나 보다 다섯 살이 많았고, 의대 재학시절에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대단한 스펙을 자랑했다. 그래서 나는 이 오빠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오빠는 나를 참 예뻐해 줬다.

차를 태워주고, 좋은 곳에도 많이 데려갔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다. 어린 나로서는 마냥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연인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슬슬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사견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을 논하는지 난 그것도 사실 맘에 들지 않았다.

나도 문제였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서도 싫은 척을 하지도 못했다. 왜 그랬을까.

정말 나는 바보였다. 너무 후회된다.

내가 그 때 이 수업을 들은 뒤였다면 당당하게 내 입장을 똑 부러지게 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오빠가 경치 좋은 곳이 있다며 가자고 했다.

그 날 그 오빠는 나를 태우고 멀리멀리 교외로 나갔다.

한사람 앞에 5만원이 넘는 비싼 음식도 먹었다.

그리고 엄청 예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도 가서 오빠의 노트북으로 영화 한 편도 봤다.

그 때까지 너무 좋았다.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 다시 차에 탔다.

그런데 그 때 나에게 모텔을 가자는 것이다.

이미 키스는 한 사이였다.

내가 놀라면서 거기를 왜 가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가서 뽀뽀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다른 짓은 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히 키스를 하다보면 분위기가 결국 섹스를 하게 될 게 뻔한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오빠는 5살 꼬마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가자고 떼를 썼다.



TURNING POINT

난 자꾸 이러면 오빠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차갑게 돌변해서는 우리 집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난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것보다 내가 진짜 바보 같았던 점은 이 오빠가 화난 걸 풀어주려고

계속 말 걸고 왜 그러냐고 묻고 그랬다는 것이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달래려고 애를 썼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나에게 비싼 비용으로 데이트시켜 주면 나는 남자에게 성(性)을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일이 있는 뒤로도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런 점이 '대중매체00론' 수업을 들은 여자와 그렇지 않았던 나의 차이점이었다.

그 때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그 오빠도 결국 똑같은 '야동청년'이었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당시에 내가 의사랑 사귀니까 내심 좋아하셨다.

엄마는 '야동청년'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엄마는 그래도 '문학청년'을 접할 수 있었던 세대이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남자 친구들도 다 순수한 '문학청년'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매체가 만들어낸 세대차다.

난 우리 부모님과 성에 대한 대화(일명 섹스 토크)를 하며 자라지 않아서
엄마한테 오빠와 있었던 그런 일을 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부모와 자식의 섹스 토크도 이 수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 섹스 토크를 하고 싶다.

오히려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대하고 성에 내재된 큰 책임까지 다 알려주면

자녀들이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부모가 자식을 압박만 하면 자식은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한다.

오히려 뒤에서 더 일탈을 꿈꾸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과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지내고,

자식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면,

자식은 뒤에서 일탈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솔직히 내가 이런 '야동청년'들의 사고방식을 다 개혁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줄 남자를 구분해내고,

그런 '야동청년'들은 딱 잘라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요령들을 이 수업에서 배웠다.

그리고 내 신념이 확고하면 된다.

내 신념이 확고하면 절대 '야동 청년'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난 이 수업을 통해 나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고,

누가 뭐래도 내 신념을 '야동청년'들에게 당당히 밝힐 자신이 생겼다.

특히 교수님이 올려주신 '성관계 책임 서약서'도 정말 유익한 자료다.

이제 나에게 섹스를 원하는 남자들에게 당당하게 이 서약서를 내밀 자신이 있다.

어떤 남자들은 나를 '싸이코'로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싸이코'로 보는 그런 남자들은 애초에 나와서 인연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진짜 좋은 남자라면 내가 서약서를 내미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는 '야동청년'들의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내가 선택했었던 순간순간의 판단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된 듯 한 느낌이다.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겠다.

난 소중한니까.

”

청소년 여러분! 이성교제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애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교제 연애의 기본 시나리오가 어디서 온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친구는 '문학청년'에 가까운가요?

'야동청년'에 가까운가요? 또 남자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문학청년'입니까? 아니면 '야동청년'입니까?

마지막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젊은이라면
'문학청년'으로 살아야 할까요? '야동청년'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전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난 후 행동하는 지혜로운 청소년이 되세요!